

한 · 일간의 농업구조 비교

조용훈 · 류진춘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경제학과

Comparative Study of the Agricultural Structures of Korea and Japan

Yong Hoon CHO · Jin Chun RYU

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Coll. of Agricultu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struc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agriculture of Korea and Japan,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griculture and to determine the extent of development of agriculture in Korea as compared to Japan. In order to do this, the existing literature research reports and secondary data of both countries were use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

1) The percentages of upland fields have inclined to increase in Japan, while those of paddy fields have increased in Korea. However, the size of cultivated land per farm is about the same.

2) The percentage of part-time household was 85% in Japan, against 22% in Korea.

3) Farm household income was more than non-farm household income in Japan, wherease : 92% was non-farm household income in Korea.

4) The farm mechanization is more advanced in Japan than Korea.

In conclusion, Korea lags behind Japan in the following areas : ① Farm mechanization ② the structure of food consumption; ③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Korea progressed more rapidly as compared with Japan ; ④ industry became overconcentr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Key Words : Agricultural Economics, Agricultural Structures.

I. 서 언

한국경제는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

년계획 기간중, 각 시기별로 분명한 특징을 보 이면서 급속한 성장을 해 왔다. 즉 강력한 정부의 경제개발정책 입안과 실행에 의하여 한국

경제는 여러가지 국내의 제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고도성장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경제개발 계획의 목표로서는, 제1차계획기간을 기간산업의 확충과 에너지원의 확보 등 경제개발의 기반조성시기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생산력증대와 식량증산을 목표로 개간법 등이 진행되어 경지의 외연적 확대가 진행되었다.

제2차계획기간의 목표는 저임금노동력을 배경으로 경공업 중심의 수출촉진정책에 의한 공업부문확대이며, 제3차계획기간은 공업부문의 질적 성장을 꾀하기 위한 중화학공업육성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았다. 이 시기에는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농업생산성증대를 목표로 한 다수확목종벼의 보급, 농업기계화 추진, 농촌전화사업, 하부경제기반(infrastructure)개선, 새마을운동 추진 등 생산기술면에서의 변화, 생산기반의 정비가 본격적으로 행해졌다. 또 이종곡가제가 도입되어 가격정책면에서도 생산확대의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 결과 농업부문에서도 5%정도의 높은 신장율을 보여 이 기간은 한국경제의 전환기로 불려지고 있다. 제4~5차계획기간중에는 정치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제3차계획기간과 같은 경제성장을 보였다.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제3차계획기간중에 지지되어 온 고미가정책도 제4차계획기간 부터 완화되고, 생산요소 가격도 상승하여 생산증가를 억제했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전반기까지의 시기는 전전(戰前)과 같은 경공업단계로부터 전후 중화학공업단계로의 재편을 이룩한 고도경제성장의 과정이었다.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1961년에 농업기본법이 제정되고, 생산성 향상과 농공간의 소득균형을 목표로 하여 규모확대, 구조개선이라는 목표에 모든 것이 수렴된 1960년대와 1965~1975년에 대형투자를 통하여 수출지향적 중화학공업을 주로 하는 산업구조를 창출한 시기인 총합농정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고도성장이 일본농업에 끼친 영향은 대형포장화(大型圃場化), 기계화를 내용으로 한 농업근대화였으나, 교환조건으로 농가노동력을 도시로 유출시켜 주변부의 도시가 유출된 농가노동력을 흡수했다. 동시에 이

시기에는 10a당 수확량도 높아져서 쌀의 자급달성과 동시에 과잉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제3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시기로 부터 현재까지의 농업현황이 일본의 기본법 농정시대, 총합농정시대와 유사한 점이 보여 한국과 일본의 농업구조를 비교해 가면서 일본과 비교되는 한국농업의 구조적 특징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서는 기존의 문헌, 연구보고서 및 양국의 통계자료(Secondary Data)를 중심으로 한국의 제3차경제개발계획기간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와, 일본의 1960년대 기본법 농정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농업동향과 농업구조를 정리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어디까지나 한국과 일본의, 농업에 있어서의 조건의 공통성을 기본인식으로 하여, 농업에 나타난 제측면과 현상들을 비교, 그 현상이 나타난 제요인을 검토한 것으로, 양국의 농업구조변화에 대한 평가분석과 공업화와와의 관계 그리고 지역적 고찰은 과제로 남겨둔다.

II. 한·일간의 농업지위변화

1961년 이후 수출지향적 공업화전략을 채택하여 한국경제는 양적으로 빠른 성장율을 보였으나, 이와 같은 공업화일변도 개발정책은 농업의 상대적 쇠퇴를 가져왔으며 그 결과 현재 심각한 농공간의 불균형상태를 야기하였다.

먼저, 경지면적 추이를 보면, 한국의 경우 총경지면적은 1972년의 224만 2천ha로 부터 1988년 213만 8천ha로 일본과 같이 감소해 왔으나, 밭의 경우는 1972년의 93만 3천ha에서 1988년 78만ha로 절대면적이나 비율에 있어서도 감소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절대면적의 감소는 크게 밭면적의 감소에 의한 것이었다. 논면적이 증가한 이유로서는, 최소한의 주곡자급이라는 농정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시된 밭의 논전환사업과 수리안전담의 제고와 같은 농지기반조성사업, 답작에 대한 가격정책의 결과 등을 들 수 있다. (표 1 참조)

다음으로 농가호수 추이를 보면, 한국은 1972년 이후 감소를 거듭해 1988년 현재 농가

(표 1) 경지면적 추이

(한국)

	국토면적		농 경 지					
	천 ha	%	전 체		농 경 지		밭	
	천 ha	%	천 ha	%	천 ha	(1) %	천 ha	(2) %
1972	9848	100	2242	22.8	1259	56.2	983	45.8
1976	9880	100	2238	22.7	1290	57.6	948	42.4
1982	9902	100	2180	22.0	1311	60.1	869	39.9
1986	9917	100	2141	21.6	1329	62.1	812	37.9
1988	9924	100	2138	21.6	1358	63.5	780	36.5

(일본)

1960	36977	100	6071	16.4	3381	55.7	2690	44.3
1965	: 1958년	100	6004	16.2	3391	56.5	2614	43.5
1970		100	5796	15.3	3441	58.8	2411	41.2
1975		100	5572	14.7	3171	56.9	2402	43.1
1980	37780	100	5461	14.5	3055	55.9	2406	44.1
1985	: 1985년	100	5379	14.2	2952	54.9	2427	45.1
1988		100	5317	14.1	2889	54.3	2428	45.7

주 : (1), (2)는 농경지 중에서의 비율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 1989(한국)

농림성통계정보부, 포켓농림수산통계, 각년도(일본)

호수는 183만호에 지나지 않는다. 또 전체인구 중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도 동기간중 43.8%에서 17.3%로 급격하게 감소해왔다. 일본의 경우는 1960년의 36.8%에서 1970년 25.4%, 1975년 20.7%, 1988년 15.8%로 비교적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표2 참조). 이와같은 한국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 즉 비농업부문의 인구가 이동은 공업부문에 필요한 노동력 공급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촌과잉인구 해소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업부문에서 비농업부문의 노동력 배출요인인 비농업부문의 발전이 대도시 및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도시 비공식부문의 증가를 불러왔으며 농촌노동력의 유출에 따른 농촌노임의 상승, 과중한 육체적 고통 등 농촌경제악화와 심리적 부담을 주어 농업부문 발전의 기회를 더욱 더 어렵게 한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표 2) 농가호수·농가인구 및 농업비중

(한국)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가인구율	농림어업취업율	GNP중 비율
	천호	천인	%	%	%
1972	2367	14677	43.8	50.5	26.2
1976	2230	12785	35.6	44.4	23.5
1982	1957	9688	24.6	32.1	15.3
1986	1905	8180	19.9	23.6	11.8
1988	1826	7272	17.3	20.7	10.8

(일본)

1960	5576	34411	36.8	30.2	11.1
1965	5386	30083	30.6	23.5	9.3
1970	5236	26595	25.4	17.4	6.1
1975	4819	23197	20.7	12.7	4.7
1980	4541	21366	18.3	10.4	3.1
1985	4267	19839	16.4	8.8	3.1
1988	4136	19238	15.8	8.3	2.7

주: 농가호수에는 경종의 농가는 제외되어 있음(한국).

자료: 경제통계연보(한국은행), 경제활동인구보고, 1989(한국)

농림성통계정보부, 포켓농림수산통계, 각년도(일본)

한편, GNP에서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72년의 26.2%에서 1988년 현재 10.8%로 크게 하락했다. 취업자 구성비율에 있어서도 1972년의 50.5%로 과반을 점하고 있었던 것이 1988년 현재에는 20%정도로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약 20년간의 고도성장과정에서 농업은 공업화를 위해 저임금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며, 전체 산업내에서 농업의 비중은 크게 저하했다.

Ⅲ. 한·일간의 농축산물 소비구조의 변화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총생산액의 증가는 국민의 식량소비성향에 변화를 가져와 1인당 섭취칼로리 수준을 높인다. 다시말해 곡물중심의 소비성향으로부터 우유, 야채, 육류 등의 소비가 늘어나 식생활은 다양화되고 고급화(고단백질)되어 서구식 식품소비구조로 변화한다. 이러한 국민의 식생활 변화는 결국 농축산물수요에 영향을 미쳐 농축산물 고품질화를 촉진시키게 된다. (표 3)을 보면 국민 1인당 곡물의

(표 3) 국민1인당 연간 농축산물 소비량(한국)

단위: kg

		1972	1976	1982	1986	1988
주	곡	206.9	185.0	173.9	162.8	156.3
	쌀	134.5	120.1	130.2	127.1	120.4
	소맥	34.9	30.2	29.7	31.5	33.9
옥	수	1.8	2.9	3.2	2.8	3.1
대	두	5.1	6.4	8.5	8.9	8.9
서	류	10.0	7.2	4.6	3.3	2.3
기	타	2.1	2.0	2.0	1.2	1.7
야	채	62.3	68.2	130.4	114.6	115.1
과	실	14.6	16.7	30.3	35.2	39.9
육	류	5.5	6.8	11.3	14.3	17.0
수	산 물	21.3	29.8	36.4	41.8	40.9
계	란*	84.0	85.0	115.0	145.0	173.0
우	유*	2.1	5.5	15.1	28.2	39.4

주: *: 단위-개, #: 유제품 제외

자료: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주요통계, 1989.

연간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쌀의 경우 아직 주식으로서 그 위치를 지키고 있으나, 곡물전체의 소비패턴과 같은 추이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보리의 경우 그 소비가 눈에 띄게 줄어 1988년 현재 식용으로서 거의 소비되고 있지 않다. 한편 옥수수, 대두 등의 소비량은 1988년 현재, 각각 1972년의 1.72배, 1.74배로 증가했다. 이는 곡물에 대한 소비패턴이 탄수화물로 부터 단백질 식품으로 전환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과 야채류, 과일류 등의 소비도 각각 2.9배, 2.7배로 증가하고 있다.(표 4 참조) 여기서 한국, 일본의 1988년 현재 농축산물의 소비수준을 보면 한국의 경우, 축산물, 수산물의 소비가 일본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까닭에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축수산부문에 많은 발전의 여지가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국민1인당 연간 공급조식료(일본)

단위 : kg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주	곡	174.8	167.4	148.8	141.8	131.3	125.6	121.4
	쌀	126.5	122.5	105.0	97.2	87.1	82.3	78.3
	소맥	33.5	37.6	39.5	40.4	41.3	40.6	40.4
서	류	33.8	23.7	17.9	17.7	19.2	20.7	21.8
전	분	6.5	8.3	8.1	7.5	11.6	14.1	15.3
두	류	10.6	10.0	10.6	9.7	8.8	9.4	9.8
야	채	114.4	124.4	132.0	127.4	130.0	128.2	128.7
과	실	29.6	38.2	52.5	59.8	54.6	51.5	53.9
육	류	6.4	11.4	17.0	25.2	31.3	35.0	39.2
어	패류	47.1	51.4	61.3	67.4	65.5	69.3	72.1
계	란	7.1	13.0	16.7	15.8	16.5	17.1	18.9
우유·유제품		22.3	37.4	50.1	53.6	65.3	70.6	80.9

자료 : 농림수산성관방조사과, 식량수급표 1971·1988년도

IV. 한·일간의 농가경영구조 비교

한국 농업생산의 주체는 소농적 가족경영이다. 이러한 소농체제하의 경영구조의 특징은 “경영규모의 영세성”과 “가계와 경영의 미분리”로 들 수 있다.

농가의 경영경지규모별 추이를 보면 (표 5)와 같이 0.5ha, 0.5~1.0ha, 1.0~1.5ha, 1.5~2.0ha, 2.0ha이상의 모든 계층의 호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어느 계층의 농가도 농외취업 기회가 오면 언제라도 전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단, 계층

별 농가호수의 구성비율을 볼 경우 1985년부터의 농촌공업화정책에 의하여 1.5~2.0ha와 2.0ha이상 농가가 약간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경향으로서는 하층과 중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경지규모별 농가호수의 분포는 중소농 규모층에 표준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2년부터 1988년까지 1.0ha미만 농가가 66%~63%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볼 때, 한국의 농업경영구조는 영세규모의 소농구조로 정착되었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표 5)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변동추이

(한국)

	총농가		규		모		별				
	0.5ha 미만		0.5~1.0ha		1.0~1.5ha		1.5~2.0ha		2.0ha 이상		
	천호	천호	%	천호	%	천호	%	천호	%	천호	%
1972	2367	802	33.9	777	32.8	442	18.7	193	8.2	153	6.5
1976	2230	689	30.9	814	36.5	415	18.6	174	7.8	138	6.2
1982	1957	577	29.5	725	37.0	390	19.9	159	8.1	106	5.4
1986	1862	540	29.0	663	35.6	386	20.7	161	8.6	112	6.0
1988	1794	506	28.2	626	34.9	376	20.9	165	9.2	120	6.7

(일본)

1960	5756	2211	38.4	1887	32.8	1010	17.5	410	7.1	238	4.1
1965	5386	1995	37.0	1735	32.2	954	17.7	426	7.9	276	5.1
1970	5236	2030	38.8	1619	30.9	874	16.7	407	7.7	307	5.9
1975	4819	1995	41.4	1436	29.8	727	15.1	349	7.2	312	6.5
1980	4541	1922	42.3	1304	28.7	652	14.4	328	7.2	335	7.4
1985	4267	1856	43.5	1182	27.7	583	12.6	300	7.0	346	8.1
1988	4136	1698	41.1	1177	28.5	585	14.1	305	7.4	372	9.0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 1989(한국).

농림성통계정보부, 포켓농림수산통계, 각년도(일본)

(표 6) 전·겸업별 농가호수

(한국)

	전		소		1		2	
	천호	%	천호	%	천호	(1) %	천호	(2) %
1972	2081	84.9	371	15.1	151	40.7	220	59.3
1976	1865	79.8	471	20.2	300	63.7	171	36.3
1982	1623	81.3	373	18.7	173	46.4	200	53.6
1986	1509	79.2	397	20.8	157	39.5	240	60.5
1988	1417	77.6	409	22.4	160	39.1	249	60.9

(일본)

1960	1853	31.0	4132	69.0	1890	45.7	2242	54.3
1965	1149	20.6	4428	79.4	1934	43.7	2494	56.3
1970	845	15.6	4557	84.4	1814	39.8	2743	60.2
1975	616	12.4	4337	87.6	1259	29.0	3078	71.0
1980	623	13.4	4038	86.6	1002	24.8	3036	85.2
1985	626	14.3	3750	85.7	775	20.7	2975	79.3
1990	614	14.5	3626	85.5	604	16.7	3016	83.3

주 : (1), (2)는 겸업중에서의 비율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농협연감, 1989(한국).

농림성통계정보부, 농림수산통계, 각년도(일본)

(표 7) 주요도시·도의 광업·제조업 총괄(1988년)

	사업체수	종업원수	부가가치
전 국 (A)	53318	3095652	41516075백만
서울·부산(B) 대구·경기도	38899	1843754	20480801백만
(B/A)	72.9	56.9	49.3

자료 :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한국통계연보, 1989.

(표 8) 노동력 수급상황

(한국) 단위 : 천인/연(%)

	비농림수산 고용증가(A)	15-65세 인구증가(B)	(B)/(A)
1965-1975	301(6.55)	528(2.71)	1.75
1970-1980	422(6.50)	615(3.11)	1.46
1980-1991	432(4.31)	619(2.36)	1.43
(일본)			
1950-1970	1187(4.23)	1095(1.84)	0.92
1965-1975	991(2.47)	888(1.25)	0.90
1975-1980	854(4.31)	727(0.97)	0.96

주 : ()의 숫자는 연평균증가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경제, 1987. 3 (한국)

일본통계연감(일본)

일본의 경우도, 0.5~1.5ha 규모의 농가비율은 한국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으나,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농가가 겸업농이며, 2.0ha 이상의 최상층 농가도 증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지유동화에 의한 대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표 6)을 보면, 한국은 1972년부터 1988년에 이르기까지 전업농가호수 비율은 그다지 변함없이 80% 가까이 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 있어 공업화, 도시화가 일본이나 대만과는 달리 서울권을 주축으로 부산, 대구 등의 인구집중지역에 공업입지가 집중된 결과, 공업의 지방분산이 정부의 유도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인구집중도시(서울, 부산, 대구) 및 인구집중지역(경기도)에 전체 사업체수의 73%, 전종업수의 60%가 집중되어 있다(표 7 참조). 이러한 공업입

지의 중앙집중화는 역사적으로 보아 한국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취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기에 지방경제권이 형성될 여지가 없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에서는 이미 江戸(에도)시대에 재촌영주인 제후(大名 : 다이묘)를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적 통치체제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지방경제권 형성의 전통이 수립되었고, 농지법 제정과 지가 상승으로 농민들이 토지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은 경제발전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촌으로 진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농업부문의 발전에 따른 공급조건을 보아도 일본은 급속한 비농업부문의 발전으로 연간 고용증가수(연평균)가 1950-1970년에 118만 7천명, 1965-1975년에 99만 1천명, 1970-1980년에 75만 4천명이었으나, 동기간 15-65세

인구의 연평균 증가는 109만 5천명, 88만 8천명, 72만 7천명으로 비농업부문이 자연증가율을 전부 고용한다고 해도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94%정도 밖에 공급되지 않아, 부족한 노동력을 기존의 농촌노동력으로 부터 충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이것을 15-65세 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면 조건은 더욱 어렵게 되며 그 결과 농가 노동력의 비농업부문에 대한 취업은 어렵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비농업부문 고용이 1970-1980년에 42만 2천명, 1980-1990년에 43만 2천명으로 증가했으나, 15-65세 인구의 증가는 그것을 훨씬 상회하는 61만 5천명, 61만 9천명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농가의 비농업부문에 대한 취업이 어렵게 되었다(표 8 참조). 이 결과 농가의 겸업화가

정제되고 농가노동력의 유출은 “이농이촌”의 형태로 이루어져 일본의 “자택거주 통근겸업형태”인 재촌겸업형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한국의 농가노동력 유출이 일본의 “자택거주 통근겸업형태”와 다르게 나타난 배경에는 농지소유구조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특히 남자의 경우 여자와는 달리 일정수준의 학력을 요하는 도시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농가경제에서 접하고 있는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다는 것과 농가지출에서 “교육비”의 수준이 높은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때문에 전국평균의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농외소득 비중은 1988년 현재 30%정도에 머물러 있다.

(표 9) 주요 농기계 보급율(한국)

단위 : %

	경운기·트랙터	동력 방제기	동력 田植機	바인더	콤바인	건조기
1972	-	-	-	-	-	-
1976	5.6	-	0.01	-	0.003	0.03
1982	23.8	22.5	1.09	0.96	0.20	0.13
1986	42.0	35.2	3.58	1.97	0.93	1.37
1988	47.6	42.1	5.84	2.83	1.60	1.69

자료 :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보, 1989.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통계, 1989.

(표 10) 주요 농기계 보급율(일본)

단위 : %

	경운기·트랙터	동력 방제기	동력 田植機	바인더	콤바인	건조기	농업용 트럭
1960	12.3	3.8	-	-	-	-	1.7
1965	43.6	10.6	-	-	-	-	7.5
1968	60.0	36.2	-	-	-	-	16.1
1970	63.9	40.3	0.68	4.9	0.8	22.7	18.2
1975	79.3	52.5	14.94	26.8	6.9	30.2	22.4
1980	90.6	45.9	37.5	34.7	19.0	23.7	-
1985	101.3	49.2	45.5	34.7	25.4	33.7	-
1988	109.9	72.7	51.9	-	29.3	-	51.2

자료 : 농림성통계조사부, 포켓농림수산물통계, 1972, 1989.
농림성농림경제국통계정보부, 농림조사결과보고서, 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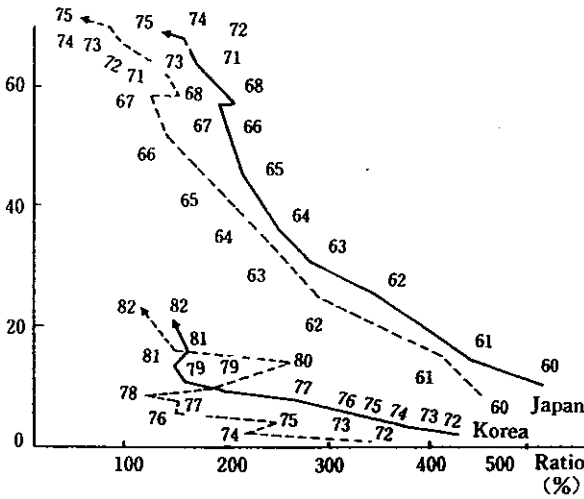
한편 일본은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농외소득에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급격한 공업화·도시화에 의한 농가노동력의 고령화·여성화의 진행에 대응한 기계화 일관작업 체제가 보이나, 한국은 아직 경운·방제 등의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이앙기·수확기의 도입도 한정되어 있어 기계화 일관작업체제의 확립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표 9, 표 10 참조). 예를 들어 한·일의 경운기 가격조건과 보급과의 관계를 보면(도 1)과 같다. (도 1)은 경운기의 경우, 가격조건 변화에 따라 보급율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것이다. 가격조건은 기계가격에 대한 노임의 비율과 기계가격에 대한 농가경제임여비율로 파악한 것이다. <기계가격-노임>의 비율은 기계작업과 관행작업간의 상대적 유리성을 결정하는 기본요소가 되며, <기계가격-농가경제임여>의 비율은 농가의 자금부담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격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양국 모두 보급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1982년 현재 한국의

경운기의 가격조건은 일본의 1970년 수준이지만, 보급율은 약 1/3수준인 일본의 196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같이 같은 조건하에서 한국의 경운기 보급수준이 일본에 비해 크게 뒤쳐진 이유로서는 비농업부문으로의 취업기회가 제약되었기 때문에 기계화에 의해 절약된 가족노동력이 농외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므로 가족노동의 취업기회 상실을 최소화하는 수준까지만 기계화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V. 한·일간의 농가경제구조 비교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으로 구성된다. 한국의 경우, (표 11)에 의하면 1985년 기준가격으로 표시한 호당 농가실질소득은 1972년에 309만원, 1982년에 452만원, 1988년에 746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호당 실질소득증가율은 1972-1977년에는 5.2%였으나, 1977-1988년에는 2.5%로 감소되어 왔다. 이는 1970년대에 비해 1980년 현재 호당실질소득은 803만원으로 농가소득보다 높은 상태이다. 농가와 도시근로자가구의 실질소득을 비교해 보면, 1972년에 농가실질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실질소득의 119%로 농가가 도시근로자가구를 앞서고 있었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악화되기 시작하여 1988년 현재 농가는 도시근로자가구의 93%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는 반대로 1965년에 농가가 도시근로자가구의 98%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었으나 점점 개선되어 1975년에 110%, 1985년에 121%, 1987년에는 133%로 호전되었다.

농가소득을 보면, 농업소득의 비중이 1972년에 82.3%, 1982년에 67.9%, 1988년에 60.4%로 감소하여, 농외소득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이 시기(1970년대 후반부터)에는 다수확률종 도입, 가격소득정책 등의 미비로 농가경제가 더욱 악화되었다. 단지 증산정책에만 관심을 쏟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과 비교해 특징적인 것은 농외소득중에서 점업소득은 농가소득 중에서 겨우 4.4%, 농외소득중에서는 11%밖에 되지 않아 각각 65%, 74.2%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차가 있는지 알 수 있다.(표 12, 13 참조)



— 농촌노임 대비 농기계 가격비율
 - - - 농가경제임여 대비 농기계가격비율

주: 도표상의 숫자는 연도를 표시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업의 선택」, 이정환, 1989.

(도 1) 경운기 가격조건에 따른 보급 추이

(표 11) 농가소득의 상대적 지위변동

(한국)

(일본)

	1인당 명목소득		1호당 실질소득			A/B	
	농가	노동자	농가 (A)	노동자 (B)	A/B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1972	429	517	3086	2598	1.19	1965	0.98
1976	1156	1152	3658	3122	1.17	1970	0.97
1982	4465	4327	4519	4688	0.96	1975	1.10
1986	5995	6735	6031	6558	0.92	1980	1.21
1988	8130	9109	7458	8033	0.93	1985	1.28
						1987	1.33

주: 농가실질소득을 농가구입가격지수(1985=100)로 디플레이트한 것

도시노동자가구실질소득을 전소비자물가지수(1985=100)로 디플레이트한 것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주요통계, 1989. (한국)

농림통계협회, 농업백서부속통계표, 1989. (일본)

농림수산물성통계정보부, 농촌물가입금통계, 1987. (일본)

(표 12) 농가소득구조

(한국)

	농가소득		농 외 소 득									
	농업소득	(1)%	소	계	경	업	소	득	농	업	외	소
	천원	천원	(1)%	천원	(2)%	천원	(3)%	천원	(4)%	천원	(4)%	
1972	429	353	82.3	76	17.7	14	3.3	62	81.6			
1976	1156	921	79.7	236	20.3	28	2.4	207	88.1			
1982	4465	3031	67.9	1434	32.1	71	1.6	1363	95.0			
1986	5994	3677	61.3	2318	38.7	274	4.6	2044	88.2			
1988	8130	4912	60.4	3218	39.6	354	4.4	2864	89.0			

주: (1), (2), (3)은 농가소득에서의 비율

(4)는 농외소득에서의 비율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주요통계, 1989.

(표 13) 농가소득구조

(일본)

	농가총소득			농 외 소 득								
	농업소득	(1)%	소	계	경	업	소	득	농	업	외	소
	천엔	천엔	(1)%	천엔	(2)%	천엔	(3)%	천엔	(4)%			
1960	449.0	225.2	50.2	223.8	49.8	184.3	41.0	39.5	17.6			
1965	835.0	365.2	43.7	469.9	56.3	395.6	47.4	74.3	15.8			
1970	1591.9	508.0	31.8	1083.9	68.2	885.2	55.6	198.7	18.3			
1975	3960.7	1146.0	28.9	2814.7	71.1	2268.4	57.3	546.3	19.4			
1980	5593.8	952.3	17.0	4641.5	83.0	3562.9	63.7	1078.6	23.2			
1985	6915.9	1065.5	15.4	5850.4	84.6	4437.0	64.2	1413.4	24.2			
1988	7451.7	952.7	12.8	6490.0	87.2	4822.2	64.7	1676.8	25.8			

주: (1), (2), (3)은 농가소득에서의 비율

(4)는 농외소득에서의 비율

자료: 농림통계협회, 농업백서부속통계표, 각년도판.

농림수산물성통계정보부, 농림수산물통계, 각년도판.

농가경제악화와 더불어 도시생활문화의 침투에 의한 소비성향의 도시화, 교육비의 증가, 의료비의 상승 등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농가의 외부 금융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가부채는 1972년에 호당평균 1만 4천원이었으나, 1980년에 33만 9천원, 1982년에 83만원, 1988년에 313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가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들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82년부터 부채가 급증하여 농가경제를 위협하기 시작한다. 1980년에서 1988년까지의 8년간에 약 9배 이상 증가하였으니 동기간의 농가소득 증가(3.0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농가부채가 증가하였다. 차입처별로 보면 1988년 현재 농협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농가는 대부분의 차입금

을 제도금융, 그 중에서도 농협으로 부터 차입하고 있다. 용도별로 보면 생산성 부채가 63%로, 농가가 농업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차입금이 그대로 부채화였다(표 14, 15 참조). 이와같이 농가부채가 증가하여 농가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이유로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1) 농업수익성 저하: 정부의 물가안정 및 농산물가격상승 억제정책, 품종개량 등의 요인작용과 2) 농가지출구조의 변화 즉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한 농업투자의 확대, 도시화·공업화로 인한 농가의 소비수준향상, 교육비의 과다지출 등이다. 1986년의 농협조사에 의하면 농가호당 평균 교육비 지출이 도시근로자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3) 1983-1984년의 소값파동: 가장 단기간으로 농가에 가장 치명적인 손실을 주었다.

(표 14) 농가부채추이 (한국)

단위:천원

계	차 입 처 별				개 인	용 도 별		
	제 도 금 융			생 산 성 부 채		가 계 성 부 채	차 입 금 상 환 용	
	소 계	농 협	기 타					
1972	14	5	4	1	9	8	5	1
1976	37	16	14	2	21	24	11	2
1982	830	554	524	30	276	509	263	58
1986	2129	1550	1436	114	642	1357	537	298
1988	3131	2652	2511	141	479	2003	729	399

주: 1호당 평균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주요통계, 1989.

(표 15) 농가부채추이 (일본)

단위:천엔

계	차 입 처 별		
	채 투 · 제 정 자 금	농 협 계 통 자 금	기 타
1970	383.5	70.4	85.7
1975	842.7	133.9	217.5
1980	1629.2	270.4	522.3
1985	2054.2	394.0	690.1
1988	2063.1	395.3	752.1

자료: 농림통계협회, 농업백서부속통계, 각년도판.

VI. 요약 및 결론

이상 한·일간의 농업구조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농업을 둘러싼 조건을 보면, 한·일 양국 모두 농경지 면적은 전체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지의 구성은 한국의 경우, 밭의 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주곡자립이라는 농정목표하에서 논 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논 면적은 1970년 이후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경지규모별 농가호수의 구성비율 변화를 보면, 한국에서는 전반적인 경향으로서 0.5-1.0ha와 1.0-1.5ha의 비중이 증대하여 중소농 규모층으로 표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비교적 최하층(0.5ha)과 최상층(2.0ha 이상)이 증대하는 양극분화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하층의 비중이 높은 것은 기업의 농촌진출에 의하여 농민들이 토지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극히 영세한 토지를 자정하면서도 농외취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농가인구율은 한국, 일본이 각각 17%, 16%로 거의 비슷하나, 농업취업자율은 한국이 일본의 2.5배 정도 높다. 한국에서는 농외취업, 그 중에서도 통근취업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85%의 농가가 겸업농가이지만, 한국에서는 22%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78%가 전업농가이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공업화·도시화가 서울 등 특정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지역(지방)산업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 이외의 직장을 지역내에서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식량자급율은 양국 모두 쌀 이외에는 선택적 확대라는 농정하에서 생산량이 감소해 1988년 현재 한국은 41.5%, 일본은 30% 수준으로 떨어져 수입농산물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금액으로 환산한 농림어업생산 비율을 1988년 통계로 보면 곡물·원예, 축산, 수산의 비율은 한국이 75.9%, 6.4%, 11.5%이고 일본이 53.1%, 20.2%, 19.2%를 차지해 한국은 곡물·원예를 제외한 축산, 수산의 비율이 일본에 비해 월등히 낮

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축산, 수산 부문에 발전의 여지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둘째, 농가 및 공급구조를 보기로 하자. 호당 평균경지면적은 한국이 1.2ha, 일본이 1.3ha로 거의 같다. 호당 농가소득(1988년 현재)은 한국, 일본이 각각 148만 8천엔, 716만 3천엔이나, 그 중에서 농외소득율은 한국이 40%, 일본이 87%로 한국에 비해 두배이상 높은 농외소득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농외소득중에서 겸업소득은 겨우 11%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 나머지 89%는 피중·보조금 등의 겸업 이외의 소득이다. 주요 농업기계 보급율은 농업기계에 대한 가격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양국 모두 보급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같은 가격조건하에서도 한국은 기계 사용의 제약성(농업취업의 제한) 등으로 보급율이 일본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1988년 통계에 의하면 경운기의 경우, 보급율은 한국이 48%, 일본이 109%로, 한국은 일본의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경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생산비 커버율은 한국이 130%, 일본이 110%로 정부 수매가격이 생산비를 커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농가수취율은 각각 85%, 83%이다. 농·공간 상대소득을 보면 한국은 1970년대 전반부터 낮아지기 시작하여 1988년에는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9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농가 판매조건이 저하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국의 농가는 농가소득 중대를 위해 1982년경부터 농협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생산자금을 차입했으나, 이것을 뒷받침해 줄 유통, 가격, 생산정책 등의 미비로 확대재생산에 사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부채로서 남아 농가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한편, 일본은 1970년대 전반경부터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을 추월하기 시작하여 1987년에는 133%에 달하고 있다. 농산물수입은 한국이 농업총생산액의 20.2%에 달하는 농산물 수입하고 있으며, 전체 수입액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각각 56.8%, 24.9%로 전체수입액의 1/4을 농산물이 차지하고 있다.

셋째, 소비구조를 보면 양국 모두 곡물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우유, 일본의 경우는

육류의 소비증가가 눈에 띈다.

이상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지을 수 있다. 1) 한·일간의 농업구조에 있어 유사한 점은 영세소농적 가족경영이라는 것이다. 2) 상위점으로서 ①경지구조는 한국이 논의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하여 일본은 밭이 증가하고 있다. ②전·겸업농가구조에 있어서 한국은 전업농가율이 높는데 반해, 일본은 겸업농가율이 높다. ③농가계층간의 동향은 한국이 중하층 표준화인데 반해, 일본은 비교적으로 양극분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한국농업은 일본농업에 비해 기계화의 정도 및 농산물의 소비구조면에서 뒤떨어져 있다. 4) 이와같이 한국농업이 뒤떨어진 이유로는 ①공업부문의 농촌노동력에 대한 흡인력이 빈약했다. ②한국의 공업화(수출지향적 공업화전략)·도시화가 서울 및 특정지역 집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의 지역(지방)산업이 발전되지 못해 이촌탈농적 농외취업으로 농업기계화가 늦어졌다고도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田代洋一. 1990. 한국농정의 동향. 현대농업정책론. 한울. pp. 55-59.
2. 朱宗桓. 1990. 韓國의米作經濟. 농업경제연구 62 (2): pp. 92-93.

3. 이정환. 1988. 한국농업의 선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 104-108.
4. 서기원. 1988. 농가부채의 누적요인분석. 현대농업정책론. pp. 104-108.
5. 祖父江利衡. 1990. 韓國農家經濟の特徵に關する一考察-農家勞動力流出形態を中心に-. 농촌경제연구 62 (2).
6. 嘉田良平. 1989. 最近韓國米麥事情-轉を迎えた韓國糧穀政策, 創研印刷.
7. 김충실. 1989. 6. 대도시지역 농업의 작부체계 비교분석(Ⅰ). 농촌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 55-69.
8. 국제농림업협력협회. 1989. 개발도상국 축산사정조사 연구보고서. 대한민국.
9. 농림통계협회. 1990. 농업백서.
10. 全國協同組合中央會. 1990. 현대일본농업론. 筑波書房.
11. 杉山道雄·千田正作. 1989. 農畜產物生産・流通の國際化對應. 名文書房.
12. 권용덕. 1990. 농촌인구변동패턴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3. 金秉澤. 1982. 6. 韓國における水稻多收穫導入による農家の稻作所得極大化條件に關する研究. 農林問題研究.